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구직자들이 채용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 /연합뉴스

# 올 공공기관 취업문 전년比 11% 더 열려

**잡코리아 정규직 신규채용 분석**  
공기업 6224명 등 총 2만5777명  
철도공사 1550명, 가장 많이 뽑아  
준 정부기관 97곳서 7518명 채용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계획 규모는 2만57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만3260명) 대비 10.8% 증가한 수준이다.

잡코리아는 '2020년 공공기관 채용 정보박람회'에서 발표된 362개 공공기업의 2020년 정규직 신규 채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기관 유형별로 공기업 36곳이 6224명을 뽑고, 준 정부기관 97곳에서 751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외 229곳의 기타공공기관에서 총 1만2035명의 정규직 채용이 있을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155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채용 계획 규모 1위를 차지했다.

2위에는 1500명의 정규직 채용 계획을 밝힌 한국전력공사가 올랐고,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1015명), 충남대학

교병원(953명), 부산대학교병원(944명) 순으로 5위권을 차지했다. 경상대학교병원(900명), 전남대학교병원(778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76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620명), 서울대학교병원(573명)도 정규직 채용계획 규모 10위권에 드는 공공기관으로 꼽혔다.

특히 이들 1~10위에 오른 공공기관의 채용계획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채용계획 규모의 3분의 1 이상인 37%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473명), 전북대학교병원(448명), 한국수자원공사(411명),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407명), 국민연금공단(404명) 순으로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이 많다.

주무부처별로는 교육부 산하 기관들이 6258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진행할 계획으로 채용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 4088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국토교통부(3866명)와 보건복지부(3615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91명) 산하 기관 역시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문영철 기자의  
국방 칼럼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수입비탄총과 관련해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가 소비자와 관련산업보호가 아닌 공포를 확산시킨다는 비난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수입비탄총의 75%가 탄속제한 장치를 해제할 경우 국내 안전 기준을 2~7배 웃도는 파괴력을 지녔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경우'다. 경우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말들을 만들수 있다. "과도로 찌를 경우 사람의 배가 갈라질 수 있다." "술을 먹고 운전할 경우 자동차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생활용품도 때때로 위험하다. 그렇지만 어디까지의 '경우'일뿐이다. 유희용 수입비탄총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은 국내외 어디에서도 아직까지 밝혀진바 없다. 악의적인 용도로 쇠구슬을 넣고 위력을 높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괴했다는 정도

는 간혹 보여진다.

그래서 경찰과 정부 당국은 그럴때마다 선의의 비탄총소유자와 업계를 조사한다.

해외의 경우 유희용 비탄총의 운동에너지(발사력)를 0.2g 탄 기준으로 1~7J(줄) 정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모의전투를 하기위해 필요한 사거리를 위해 허용치를 높인 것이지만 보호장구류를 갖추고 부상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동모터로 발사되는 비탄총을 최초로 생산해 레저스포츠로 확대시킨 것은 80년대 일본이었다. 일본은 자위대 훈련용으로 비탄총을 활용하기도 했다. 일본에 이어 국내 기업도 90년대 전동 비탄총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명확하지 않은 법령과 과도한 규제가 산업을 퇴보시켰다.

우리나라처럼 비탄총을 모의총포로 엄격히 규제하던 대만은 90년대말 규제혁파를 통해, 군사문화산업으로 육성했다. 민간 레포츠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용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경제와 군사 두마리 토끼를 잡았던 것이다.

국내에서 비탄총의 판매와 소유를

금지했던 중국도 뒤늦게 경제적 가치를 깨닫고, 지난해 비탄총을 사용하는 국제적인 모의전투경기를 개최했다. 중국은 국내 저변화는 아직 낮지만, 비탄총 수출시장에서 시장을 점유율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 소재의 회사가 훈련용 총기개념의 비탄총을 수출하고 있다. 향후 국군훈련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군의 제식소총을 개발하고 있다. 뒤늦은 감이 없지않지만, 향후 성장가능성이 기대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처럼 정부 기관 등이 성과홍보용으로 내놓는 자극적 보도자료가 수출가능성을 발목잡을 지도 모른다.

성인용이 아닌 미성년 완구에 대한 안전지침 강화, 유희용 비탄의 비정상적 사용과 유통을 막으면서도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킬 법령은 구천을 떠돌듯 국회에서 계류되다 폐기된 상황이다. 안보적요구도와 경제효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captim@

# 法 “교육부, 상지대 정원감축 처분 지나쳐”

“재량권 남용”... 교육부 항소 검토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받은 상지대가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교육부는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상지대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원 감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4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상지대와 상지학원을 감사한 후 회계 부정 등 5건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8년 상지학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9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내렸다. 상지학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해 실제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간 대학 운영이 부실했던 데는 교육부 책임이 크데, 정원을 감축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지대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5건 중 2건은 이행을 했거나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학 정원을 감축하라는 교육부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도를 점수로 따져 처분 수준을 정하는데, 법원은 5건 중 3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지대의 점수가 73.2점에 해당한다고 했고, 정원감축은 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교육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세종대 SW중심대학 사업단 예비 세종인 SW교육 특강

세종대학교는 SW중심대학 사업단이 최근 대양AI센터에서 세종대 2020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세종인을 위한 SW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으며, 전공이 다른 180여 명의 예비 신입생이 참여했다.

특강은 ▲무인이동체와 소프트웨어 기술 ▲물리 현상과 SW코딩 ▲코딩으로 만드는 특수효과 ▲개발자의 성장에 필요한 필수 학습과 습관 등이다.

### 동국대-상해중의약대 교육·연구영역 교류협정 맞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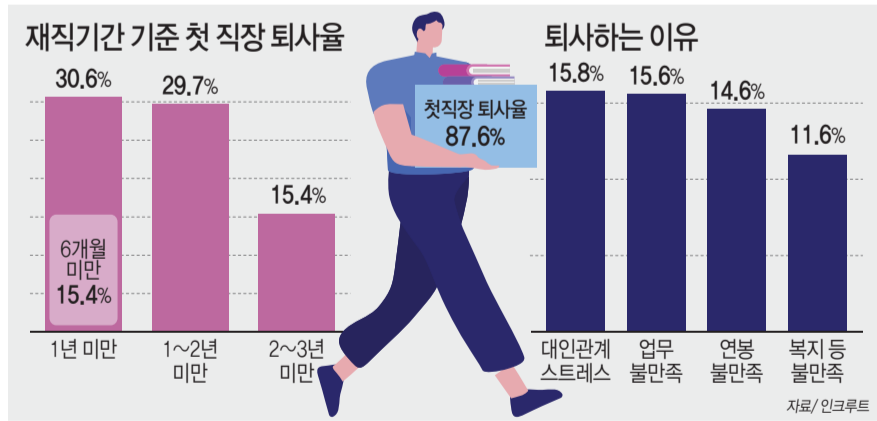
동국대학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스님이 지난 6일 중국 상해중의약대학교를 방문해 양교 간 교육과 연구영역에 대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정을 맺은 교류 분야는 ▲학부생 및 연구생 교류 ▲교원 및 연구원 교류 ▲학술자료, 출판물 및 학술정보 교환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등이다.

### 삼육대 노원서 체험·실습형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삼육대 평생교육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2019 겨울 노원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7~10일 교내 일원에서 운영한다. 이 캠프는 노원 지역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원구와

학·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1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캠프에는 관내 초등학교생 156명이 참여한다. 특히 캠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포함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 7명을 선발하여 참가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용수 기자



## 어렵게 구한 첫 직장 10명 중 8명 떠난다

회사자 '1년 미만' 30%로 가장 많아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첫 직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직장인 18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6%는 첫 직장을 퇴사했다고 답했고, 12.4%는 첫 직장에 재직 중이었다. 이는 지난 2003년 동일 조사의 첫 직장 퇴사율(80.4%)과 비교해 7.2%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기업 규모별 첫 직장 퇴사율은 ▲'공공기관'이 80.9%로 가장 낮았고 ▲'대기업' 86.8% ▲'중견기업' 87.2% ▲'중소기업' 88.1% ▲'영세기업' 90.3% 순이었다.

퇴사시기는 ▲'1년 미만' 근무자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다. ▲'재직 7~12개월 이내'는 15.2%였으며 '6개월 이내' 퇴사자도 15.4%나 됐다. 특히 6개월 이내 퇴사자 비율은 '대기업' 13.7% 대비 ▲'영세기업'이 24.3%로 평균보다 높았다. /한용수 기자

### 서종국 인천대 교수 도시행정학회 회장 선임

한국도시행정학회는 지난 7일 서울시립대학교 21세관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2020년 학회장으로 인천대학교 서종국 교수(사진)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서 교수는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 유일의 3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국도시행정학회를 올해 이끌어 나갈 책임을 지게 됐다. 서 교수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과 같은 국가와 지방의 도시 현안에 대해 도시행정의 주체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